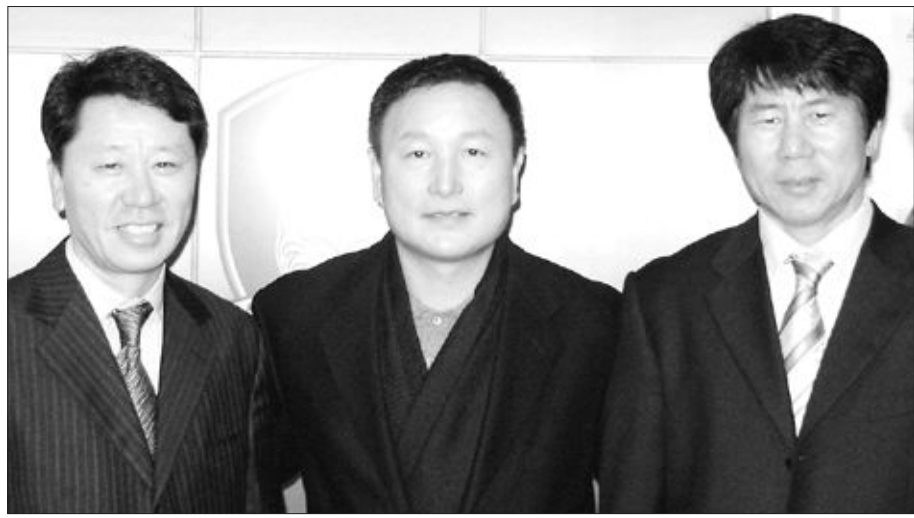




■ '허정무호' 코치진 인선 마무리



허정무(가운데) 축구대표팀 감독이 1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첫 대표팀 코칭스태프 회의를 앞두고 정해성 수석코치(왼쪽) 및 새로 선임된 김현태 GK 코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의 용사들 다시 뭉쳤다

2000년 정해성(수석)·김현태(GK담당) 체제 부활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 최종예선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을 이끌어 나갈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했다.

허정무(52) 감독과 정해성(49) 수석코치, 김현태(46) GK 코치는 12일 오전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첫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시작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에 대비한 코칭스태프 선임작업을 마쳤다.

이날 코칭스태프 회의는 영국 축구연수

중에 수석코치로 선임된 정해성 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이 11일 오후 늦게 귀국함에 따라 축구협회 회장단 상견례를 겸해 이뤄진 것이다.

3명의 코칭스태프는 김재현 축구협회 부회장과 김호근 전무와 상견례를 가진 뒤 감독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정해성 수석코치를 선택한 허 감독은 이날 김현태 GK 코치를 낙점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코치 자리에 포항 스틸러스

스 사령탑 시절 현역 선수로 활약했던 박태하(39) 포항 코치를 불러들였다.

김현태 GK 코치는 2000년 10월 레바논 아시안컵부터 대표팀 GK 코치로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허 감독 감독을 보좌해 4강 진출의 기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축구협회는 이밖에 김세운 전(前) 제주 유나이티드 비디오파나를 대표팀에 합류시켜 신승훈 축구협회 기술분석관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1 황제' 독일 슈마허 택시기사로 '반짝변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에서 7번이나 종합 우승을 하는 등 'F1 황제'로 불렸던 미하엘 슈마허(38·독일)가 이번엔 '총알 택시' 기사로 잠깐 변신해 화제다.

AFP 통신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슈마허가 독일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장 빠른 택시 기사를 됐다"며 "슈마허가 9일 독일 남부 코버그에서 약 30km 떨어진 계곡까지 새 애완견인 호주산 셰퍼드 '에드'를 데리러 갔다가 다시 코버그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의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직접

가족 비행기 도착 시간 맞추기 위해

직접 운전-챔프실력 유감없이 발휘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슈마허는 부인과 두 아이, 택시 기사를 승객 자리에 앉히고 서킷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F1 챔피언다운 모습을 과시한 셈이다.

택시 기사 토크를 일마즈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슈마허의 운전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코너에서도 거의 전속력을 내는 등 여러 번 믿을 수 없는 운전 실력을 발휘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인터넷판에 "택시기사 슈마허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3km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슈마허는 '시운전'을 마친 뒤 택시 요금 60유로(한화 약 8만 1천원)와 탑으로 100유로(한화 약 13만 5천원)를 더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 /연합뉴스



13일(목)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6차전 <AS로마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04 : 30·MBC ESPN)<아스날 : 슈테아우아>(07 : 00·MBC ESPN)<레안저스 : 리옹>(09 : 00·MBC ESPN)

▲07/08 NBA<디트로이트 : 휴스턴>(10 : 00·SBS스포츠)

▲2007 대학배구대회<한국청팀 : 호주>(13 : 50·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동부 : SK>(18 : 50·XSPORT)

▲07/08 V리그 남자부<LIG : 상무>(19 : 00·KBS N SPORT)

▲FIFA 클럽월드컵 2007 준결승<우라와 : AC밀란>(19 : 20·SBS스포츠)

"김두현 창조적이고 재능있다"

웨스트브롬 감독 극찬

김두현(25·성남·사진)이 입단을 타진 중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웨스트브롬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롬) 감독이 김두현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토니 모브레이 웨스트브롬 감독은 1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두현은 볼을 다루는데 있어 의심할 나위 없는 기량을 가졌다. 이는 40차례 이상 A매치에 출전한 선수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브레이 감독은 이어 "김두현은 한국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 뛰었고 매우 유명하다"며 "아주 창조적이고 재능이 있다. 양발을 모두 쓰며 패스도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하지만 모브레이 감독은 김두현 영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요새 경기 일정이 빽빽해서 선수들 훈련 강도가 세지 않았다. 그저 공을 건드리는 수준이었다. 김두현도 한국에서 비행기로 날아왔기 때문에 가벼운 훈련에서만 시간 정도 뛰었다"며 충분한 테스트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두현의 플레이를 경기 장면 DVD와 단 두 차례의 훈련을 통해서만 지켜봤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의 에이전트와 더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 내 볼이었네"

1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루더포드에서 열린 2007~2008 미국프로농구(NBA) 뉴저지 넷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에서 LA 클리퍼스의 루벤 패터슨(왼쪽)이 뉴저지의 빈스 카터가(오른쪽)가 놓친 공을 잡아내고 있다. LA클리퍼스가 91-8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천수 앞으로 처신 지켜보겠다"

페예노르트 감독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보겠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의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이 2주간의 '화려한(?) 휴가'를 마치고 팀에 합류하는 이천수(26·사진)에게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12일 네덜란드 축구유력지 풋볼인더네셔널과 인터뷰를 통해 "감기 및 장염 증세 때문에 한국으로 잠시 돌아갔던 이천수가 휴가를 마치고 팀에 합류한다"며 "구단은 물론 팀 동료들이 이천수가 네덜란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천수가 출국하기 전부터 팀은 이미 니키 호프스와 루이 기 브루인스 등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부터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다"며 "이천수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당시의 답답함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너무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노홍철 페예노르트 감독은 12일 "내년에는 K-리그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면서 "내년 시즌 뒤에 승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노 감독은 구체적인 승격 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만 답변하기 곤란하다. 14일 내

미포조선 K-리그 승격 또 포기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정상에 올라 K-리그 진출 기회를 얻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 지난 해 고창 국민은행에 이어 K-리그 승격을 또 포기했다.

노홍철 미포조선 단장은 12일 "내년에는 K-리그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면서 "내년 시즌 뒤에 승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구체적인 승격 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만 답변하기 곤란하다. 14일 내

셔널리그 이사회 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미포조선은 올 시즌 초반에는 "프로로 승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우승을 확정지은 뒤에는 K-리그 승격시 선수 확보 어려움과 연고 이전, 재정 마련 등의 문제점을 두고 심층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 내년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

내셔널리그 연맹은 미포조선의 K-리그 승격 포기 14일 이사회를 통해 승격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2년 연속 진출팀 없어 승격제 재검토 불가피

지난 시즌 고창 국민은행의 승격 포기 이후 2년 연속 승격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단장은 그러나 내년 시즌에는 충분히 K-리그 올라갈 여건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을 유보해 꼭 K-리그에 진출하겠다"면서 "아직 내부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1년 유보 건을 놓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Opportunity' (작은 만남 큰 기회)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companies like '빛고을 출장 뷔페', '임실치즈피자백운점', '웰빙태국전통맛사지', etc.